



김명근 기자의 IT 월드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시장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 미니'(왼쪽)와 네이버 '프렌즈'가 이달 정식 판매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카카오-네이버



'엑스박스 원 엑스' 11월7일 국내 출시

24일부터 이마트·하이마트 등 예약 시작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기기 '엑스박스 원 엑스'(사진)를 11월7일 국내 출시한다. 엑스박스 원 엑스 및 한정판 '엑스박스 원 엑스 프로젝트 스피어 에디션'은 예상 소비자가 57만8000원으로 판매 예정이다. 24일부터 이마트(영등포, 죽전, 고양)와 하이마트(잠실, 월드타워), 홈플러스(합정), 11번가, 옥션, 지마켓을 통해 예약구매 할 수 있다.

엑스박스 원 엑스는 6테라플롭스의 GPU와 12GB의 메모리를 탑재했다. 매끄러운 프레임 속도와 빠른 로딩으로 뛰어난 그래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4K 디스플레이를 지원해 몰입감 넘치는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 블루레이 엑스 및 스트리밍 콘텐츠용 4K UHD, 게임 및 비디오용 HDR,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모든 엑스박스 원 게임과 엑세서리는 호환된다.

김명근 기자

점입가경 'AI 전쟁', 제휴로 덩치 키우는 ICT 거인들

AI스피커 카카오미니·프렌즈, 정면충돌 카카오-삼성 vs 네이버-LG, 제휴도 활발 생활밀착형 금융·쇼핑 등 새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IT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스마트 스피커 신제품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몸집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전 제조사 등과의 제휴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카카오가 10월 말 '카카오 미니'를 정식 판매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가 '웨이브'에 이은 두 번째 스마트 스피커로 맞불을 놓는다. 네이버는 AI플랫폼 '클로바'가 적용된 스마트 스피

커 '프렌즈'를 17일 공개하고,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인프렌즈 캐릭터 '브라운'과 '샬리'를 모티브로 한 제품으로, 378g에 이동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연속 5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배터리도 갖췄다. 가격은 12만9000원. 네이버는 네이버뮤직 이용권 프로모션(무제한 1년 이용권 포함 9만9000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 클로바는 음악재생과 생활정보 검색, 일정 브리핑, 교통정보, 영어대화 등 생활 밀착형 기능을 제공한다. 10월 중 일정 관리, 11월 중 배달 음식 주문 기능도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쇼핑과 예약, 내비게이션, 메시지 음성 제어 등 지원 기능을 넓혀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프렌즈에 이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한 '페이스' 등 다양한 라인업의 스마트 스피커를 준비 중이다. 웨이브의 경우 1·2차 이벤트가 모두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9월 예약판매를 시작한지 40분 만에 준비한 3000대가 모두 팔린 카카오의 카카오미니도 비슷한 시기에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예약구매자들은 다음 주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정식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정판매가는 11만9000원이고 판매 조건과 혜택 등 세부사항은 곧 공개할 예정이다.

●칩셋 제조사부터 완성자, 유통까지 외연 확장 '열광'

카카오미니는 AI플랫폼 '카카오아이'를 적용해 음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일정과 알람, 메모를 등록·확인하거나 뉴스, 환율, 추가, 운세 등 정보를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정보기, 금융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AI플랫폼의 외연 확장도 공을 들이고 있다. 칩셋 제조사부터 완성차업체, 유통업체까지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전 대기업과의 합작이다. 카카오는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LG전자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는 카카오아이를 삼성전자 생활 가전제품에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명령·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도 글로벌 칩셋 기업 퀄컴과 제휴를 맺는 등 클로바의 확산을 위해 협력범위를 넓히고 있다. 3월 열린 모바일전시회 'MWC'에서 클로바를 처음 공개하면서도 여러 분야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을 밝혔는데, 그 중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LG전자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T 폴더형 스마트폰 '스마트 폴더' 단독 판매

SK텔레콤은 폴더형 스마트폰 '스마트 폴더'(LGM-X100S)를 17일부터 공식 인증 대리점과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를 통해 단독 판매한다. 출고가는 29만7000원.

색상은 블루와 화이트 2종이다. 스마트 폴더는 물리 키패드와 터치 디스플레이를 함께 갖춘 제품으로, 터치형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유용하다. 특히 실버 세대를

위해 통화할 때 얼굴이 화면에 닿아 의도하지 않은 터치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똑똑한 터치 잠금', 별도의 버튼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켤 수 있는 '데이터 잠금' 기능 등을 갖췄다. FM 라디오 안테나를 내장,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 SK텔레콤은 실버 세대를 위한 폴더형 스마트폰 '스마트 폴더'(LGM-X100S)를 17일부터 단독 판매한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편집 | 이수진 기자

대한민국 대표 해장국!!! 복지리 이제 부담없이 즐기세요!!!

복지리 대중화 선언!!!

5,500원

가격을 확 낮춰 많은 손님들이 만족하며 계속 찾아주십니다!!!

업종변경 · 취급점 대모집!!!

요리 노하우 전수, 현수막, 배팅, 배너간판, 각종장기, 초도물품제공

298 (카드 할부가능) 만원 오픈!

상담문의 ☎070-4351-5700

복지리(해장국)

● 취급점 개설 ● 기존 영업하시는 상태에서 **간판은 그대로 메뉴만 추가**하는 형태로 상당히 반응이 높습니다.

● 업종변경 개설 ● 현재 매출 부진하거나 메뉴 때문에 고심하시는 업소는 **간판 천장이 및 각종 홍보물 디자인 제공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업종 변경**할 수 있게끔 전화해 주시면 직원을 파견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남녀노소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출증대와 사계절 비수기가 없습니다.

● 자체개발한 천연 농축 육수와 손질된 복 재료 공급으로 초보자도 간단한 요리 교육 전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